



연구개발비 원상회복!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말살 정책 분쇄!

과기연구주간소식



22호
2024. 11. 12.(화)

발행_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발행인_최연택 위원장 홈페이지 www.kupst.org E-mail: mail@kupst.org

충북테크노파크 임금협약 체결 이행 촉구!

- 충청북도의회 피켓팅, 집회 진행 -



11월 7일(목) 아침 8시부터 충북테크노파크지 부를 비롯해 우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충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가 열리는 충북도의회 앞에서 2024년 임금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9월 20일 (금) 4.45%와 직급보조비 신설을 잠정 합의했고 9월 30일(월) 오후에 체결식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으나, 9월 26일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협약 체결 거부 이후 한 달 반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이후 오원근 원장의 태도변화와 임금협약 체결의 중단은 충북도의 입김 때문이라 판단한 충북테크노파크 지부 간부들은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맞추어 충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에게 대한 피켓팅과 집회를 진행했다.

12시에 시작한 중식 집회에서 박성호 충북테크노파크지부장장은 “오늘 집회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테크노파크 윤종욱 원장 먹튀 우려

- 기본재산적립금 보통재산 편입 반대 피켓팅 진행해 연기시켜! -



지난 11월 5일(화) 13시 30분 서울테크노파크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서울테크노파크 지부 간부들과 김태훈 테크노파크 부분부장을 비롯한 테크노파크 지부장들이 연대해 피켓팅을 진행했다.

2024년 서울테크노파크 윤종욱 원장은 재단의 경영난을 핑계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했으나, 기관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 와중에 기본재산적립금 중 7억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청을 이번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본인의 임기까지 기본재산적립금과 장비수익금으로 버티다 퇴임 하고나면 그만이라는 먹튀 행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이효진 서울테크노파크지부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기부와 이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본재산적립금 사용 대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책임을 원장에게 묻도록 노력했다. 이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본재산적립금 사용을 2024년 연말로 미루고, 신규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원장에게 요구했다.

행사와 집회



서울테크노파크 이사회 항의 피켓팅(11.05.)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연임 반대 선전전(11.05.)



한국재료연구원지부 임금교섭 상견례(11.07.)



충북테크노파크 임금협약 이행 촉구 피켓팅(11.07)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의 달 11월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청계천 7가 평화 시장.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를 열사로 불렀다. 더러는 '인간 예수'라고 했다. 바로 전태일이다.

스물두 살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평화 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했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일요 근무는 예사였고 만성 신경통과 피부병, 위장병에 시달렸다. 잠이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야근을 한 끝에 돌아오는 급여는 커피 한 잔 값인 70원. 열악한 환경 속에 소년 전태일은 서서히 눈을 뜬다.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해 어린 봉제공을 도와가던 재단사 전태일의 요구는 노동 시간을 하루 10~12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요일을 쉬며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태웠다.

전태일의 분신은 한국 노동 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듬해인 1971년 발생한 노사 분류가 1,656건. 전년의 165건보다 10배가 많았다.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쳐 노학(勞學) 연대 투쟁은 1970년대 전체를 관통한다. 고조영래 변호사가 남긴 《전태일 평전》은 대학 새내기의 필독서였다.

54년 전 오늘.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치르기 위해 평화 시장 앞에서 웅성거릴 즈음, 전태일은 몸에 불을 붙인 채 피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밤 10시, 명동 성모병원에서 어머니 이소선 씨 품에 안긴 전태일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배가 고파요."

KUPST LABOR LAW WORKSHOP
ON HARASSMENT AND COLLECTIVE BARGAINING AT WORK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2024년

법률학교

법과 제도 이해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 11.20.(수) 13시 ◇ 대전TP D-STATION 2층 교육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 참석대상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조합원 누구나

☑ 주 제

강의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강의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일 정

13:00 여는 시간
13:10 제 1강
15:20 제 2강
17:20 닫는 시간
18:00 뒤풀이



주요 언론 보도

[與, '2034년부터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 동아일보](#)

[창의재단 신임 이사장에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 대덕넷](#)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충북테크노파크 임금협약 체결 촉구 - 충청타임즈](#)

['고리친 거 아니냐' 성폭력 피해자 모욕감에 투신, 중상 - 오마이뉴스](#)

[내년 기초연구사업 예산 2조3413억원, 역대 최대 - 대덕넷](#)

['되짜·불합격도 가치' KAIST실패학회...망한과제자랑대회 - 동아일보](#)

[충북테크노파크 임금협상 한 달째 지연..."충북도 눈치만 보나" - 충북inNEWS](#)

[충북테크노파크 노조, 임금 협상안 이행 촉구 - 연합뉴스](#)

["제주테크노파크,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전격 합의 - 뉴시스](#)

["충청북도, TP 노사 파탄 책임지고 노정교섭 나서야" - KBS 청주](#)

주요일정

11월 11일	14:00 호남지역본부 모임
	14:00 과학시설관리단 보충협약 교섭
11월 12일	09:00 호남지역본부 모임
	15:00 전남대불산학융합원지부 기본단협 상견례
11월 13일	14:00 파스퇴르연구소지부 신임 지부 간부 면담
11월 14일	12:00 활동가 기초 과정 4강
	16:00 안내강사 워크숍
11월 15일	09:00 안내강사 워크숍



KUPST.org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